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i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뜻쟁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잠언 8,22-31

[화답송] 시편 8,4-5,6-7,8-9 (◎2 가)



(후렴)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 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빛으신 하늘하며, 걸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예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제 2 독서] 로마 5,1-5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

[복 음] 요한 16,12-15

[성가안내]

- 입당성가 [81] 영광의 주 성삼위
-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 성체성가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 파견성가 [77] 주 천주의 권능과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영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이 정진 안토니오 정 정옥 스테파노 강 군하, 이 기윤, 강 은국, 이 윤성, 부 대현, 최 수인 강 창성 주 악이 데레사 정 성영, 김 정숙 이 중현, 목 영순	가족 이 영애 레지나 김 유나 실비아 가족 최 은자 세실리아 최 은자 세실리아 강 혜숙 바울라 윤 동진 프란치스코 가족 이 경자 울리안나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노 시원 임마누엘라/노 시윤 글로리아 김 수열 앤토니 (영명축일, 생일 축하) 고 현실 (패유를 위해) 조 남록 미카엘 가족 위해 김 현욱 라파엘 민 완준 필립보 민 덕미 안젤라 민 사현 베드로, 민 라이언 가브리엘 이 루리 모니카, 이 경자 울리안나 임 영애 스텔라 성모회 (감사) 풍물패 '신명' (감사)	가족 김 유하 데레사 김 성중 다두 최 은자 세실리아 정 대식 리차드 가족 정 희자 리드비나 가족 가족 민 안젤라 민 안젤라 민 안젤라 신명팀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6월12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민덕미 안젤라	김하나 미리암	장동환 에드문드
6월19일	이지훈 아녜스	백승민 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이지연 안젤라

● 6월 5일 '25주년 기념 바자'를 은혜로이...

성령강림 대축일에 공동체 설립 25주년을 맞은 기념으로 준비한 '바자'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사목 협의회 임원진들의 노고와 본당 모든 단체들과 개인들... 공동체 모든분들의 협력과 도움, 후원에 조출하지만 감사와 기쁨의 잔치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풍물패 '신명'의 공연으로 더욱 흥겨운 축제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 'Zoom' 목주의 기도 (레지오)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Passcode : 368464

● 연령회 월례회의 있습니다.

- 오늘, 6/12 미사 후 교육관 1B
- 회장 선거가 있사오니, 회원들 모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 성심성월 기도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내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복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랫 성당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2층 사무실
혼인성사	
유아세례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매주 화 6:00pm~7:0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FYMNY)	넷째 주일 11:00am ~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	Conf. Rm(2F)
'신명' 풍물패	둘째,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0pm	교육관 3B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청년 전례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2E
청년 성가대	둘째 토요일 3pm~5pm	교육관 3B

[2022년 6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가정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출입·O·P·T·주 권고고민 및
권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하느님의 뜻을 생각함

- 이 철회 -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입니다. 요즘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세상의 일을 설명하는 데에서도 듣습니다만, 본래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하느님의 속성'을 사람이 알아듣기 위해서 신학에서 사용하던 어려운 표현입니다. 심오한 것이므로, 친절한 신학적인 설명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세상에서도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소리로 생각해도 될까요?

삼위일체라는 '하나가 셋이라거나, 셋이 하나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대상이 힘이나 능력이나 영광 등 그 어떤 것에도 차이가 없다'는 이론을 전제로 할 때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앙에서 사용하던 이 표현을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내심 걱정된다는 얘기는, 세상일에는 신앙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성을 지닌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의 용어인 삼위일체(三位一體)라는 말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요즘의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사람들보다 하느님을 대하는 자세에 더 큰 존경심을 갖고 지혜와 지식이 많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라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달라질 것일까요? 또한 하느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이 두 가지는 사실 인간이 가진 오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느님께서 세 가지 위격인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한 실체'라는 표현인데, 세상에서는 세상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 하느님에 관한 것을 인간의 언어로 말하는 표현들은 알아듣기가 더 어려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하느님의 힘'이라고 알아듣는 제3위 위격입니다. 우리가 제1위격인 성부, 제2위격인 성자라는 표현과 함께 하느님에 대해서 구별하고 사용하는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제1,2,3위격이라는 표현은 힘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하느님의 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난 순서에 따라 붙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이시라고 말하고, 성자는 성부이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사람으로 나시어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신 하느님이었으니, 성부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하느님이라고 말하던 과거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이신 하느님은 성자이신 하느님께서 세상에 드러낸 역할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예수님보다 늦게 등장하신 분이어서 성령은 성자에게 종속되었다거나, 세상에서는 죽음의 길을 간 성자보다는 힘이나 능력에서 더 나은 분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주장에 따라 '아리우스 이단(異端)'이 나왔고,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같은 교회의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나누고 구별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효과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하느님이시라는 신학적인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에 해결된 문제이기에 제가 짧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똑같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서도 '우수한 인간과 열등한 인간'으로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잘못된 자세가 생겼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일이 더 계속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할 일입니다.

몇 년전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난자(O)/체세포(X)>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먼저 태어난 인간들에게 생긴 질병을 치유하겠다는 생각과 미래먹거리를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일일 텐데, 일이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도움이 될 결과를 찾는다는 목적으로, 미래에 인간이 될 수 있는 귀중한 존재를 내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니,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는 태도는 과학의 오만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사는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제 맘대로 해석하고 도전하면, 당장은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권리가 많아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중하고 특별하게 대해야 할 대상을 함부로 대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간의 편리에 따라 이리저리 내 맘대로 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는 삼위일체 대축일, 하느님께서 세상에 하신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세상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